보도시점 2025. 9. 8.(월) 11:00 < 9.9.(화) 조간 > 배포 2025. 9. 8.(월)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회기간 협상 개최

- 9.8(월) ~ 12(금), 영국 런던
-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금융, 통신 등 7개 분과 협상 -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인 영국과의 FTA를 개선하기 위한 회기간 협상이 9.8(월)~12(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었던 한-영 FTA(’19년 서명, ’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1차 협상을 포함하여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7개 챕터를 집중 논의하여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영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1차 협상 이래 1년 반 이상이 지난 만큼,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롭게 부상한 경제 현안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장	손호영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3-5834)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